

# 여름옷 초가을까지 짝~

거리를 뜨겁게 달구던 더위도 끝물인 이른 지금, 패션계는 이미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다. 백화점 등에는 가을 옷을 내놓고 있다. 이제 서서히 짧은 소매 대신 긴 소매 옷을 준비해야 할 때가 된 것.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가을 옷을 구매해 코디하기에는 아직 말설여지는 것도 사실이다. 여름 옷, 요령 있게 활용하는 방법은 없을까.

### ■ 막바지 더위에는 시원한 면이나 마 소재

아직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한낮에는 조금만 몸을 움직여도 땀이나기 십하다. 짝 흡수나 통풍을 위해서는 면이나 마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땀을 잘 흡수하지 못하는 소재의 옷은 땀띠나 피부질환을 유발하므로 스타일링과 피부보호를 동시에 충족하고 싶다면 디자인단 생각하기보다는 소재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하지만 입기에는 허전해 보인다면 코르사주나 레이스 등으로 포인트를 주는 것도 좋다. 긴 스카프를 둘러 분위기를 있게 연출하는 것도 방법. 셔츠 위에 벨트를 매고 푼 소매의 재킷이나 카디건을 걸쳐주면 가을에도 유용하게 입을 수 있다.

면이나 마 제품은 자주 빨아 입을 만큼 관리도 중요하다. 색상이 바랜다면 세탁시 식초를 조금 넣고 30분 정도 담갔다가 세탁하면 선명한 색을 유지할 수 있다.



### ■ 여름옷 활용 이렇게~

인터넷 쇼핑물 걸스태이지(www.girlstage.com)를 운영하는 박연지씨는 "면소재의 긴소매 티셔츠나 얇은 니트나 블레로 등 레이어드 가능한 아이템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박 씨에게 여름 옷 활용 팁을 들어본다.

#### ①레이어드(laired·겹쳐입기)로 카멜레온 같은 멋 내기

저는 듯한 한여름에 티셔츠 겹쳐 입기가 곤란했다면 지금은 레이어드하기 딱 좋은 계절이다. 여름에 구매한 민소매 티셔츠 위에 베스트(조끼)를 겹쳐 입거나 긴 소매 티셔츠를 겹쳐 입어보자. 남색, 갈색, 검은색 등 진한 색상의 베스트는 포인트가 될 뿐 아니라 날씬해 보이게 하는 효과도 있다.

#### ②미니 스커트, 쌀쌀한 날씨에도 OK!

찬바람이 부는 아침, 저녁에는 맨다리로 나서기가 부담스럽다. 이럴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 레깅스. 특히 가을에는 복고풍 패션이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레깅스를 활용하기에 적절한 기회다. 스커트와 비슷한 컬러의 레깅스로 스타일을 살려보자.

#### ③라제리 룩은 이너웨어로 활용하기

올 여름 큰 인기를 끌었던 라제리 룩, 마치 속옷을 입은 듯한 색시한 라제리 룩은 재킷이나 니트 안에 이너웨어로 활용할 수 있다. 라제리 룩의 색시함은 살려주고 가을 분위기를 한껏 풍기는 의상으로 손색이 없다.

#### ④간질기 스테디 셀러, 블레로와 미니 카디건

길이가 짧은 블레로와 미니 카디건은 그 자체로 감촉함을 자랑하지만 원피스나 셔츠 위에 입으면 색다른 매력을 선사한다. 입고 벗기 편하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 코디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여름철 즐겨 입었던 민소매 원피스 위에 니트 소재의 블레로나 미니 카디건을 연출하면 여성스러움을 강조할 수 있다. 단정한 H라인 스커트나 일자 팬츠와도 핏팅감으로 겨울에는 코트 속 이너웨어로도 활용할 수 있는 효자 아이템이다. /박연지기자 ksj@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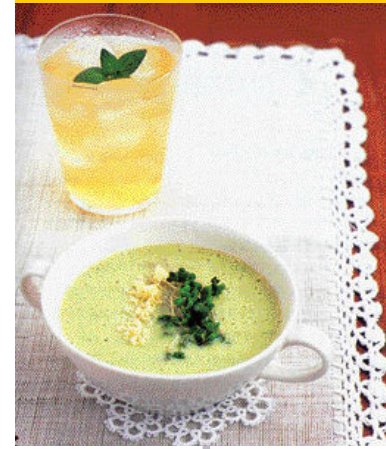
요즘처럼 아침저녁으로 쌀쌀해지는 날씨엔 팔이 드러나는 민소매 옷이 부담스럽다. 민소매 옷에는 미니 카디건이나 블레로 등으로 마무리 해보자.

### ■ '비움의 미학' 디톡스 음식

## 날씬해지려면 몸 안의 '독소'를 빼라



"디톡스는 몸 안에 쌓인 독소를 밖으로 배출하여 몸과 마음을 새롭게 초기 상태로 되돌리는 것, 즉 아름다움과 건강을 되찾는 것이다"



참살이(웰빙)가 사회의 흐름으로 자리잡으면서 좋은 것을 먹고, 바르는 일이 일상화 됐다. 디톡스(detox·해독)는 좋은 것을 더하는 웰빙과는 반대로 먼저 나쁜 것을 '빼라'며 비움의 미학을 강조한다.

디톡스 전문가들은 비만, 당뇨, 고혈압, 암 뿐만 아니라 변비, 여드름, 천식, 아토피성 피부병 등도 몸 안의 노폐물 축적에 의한 것으로 설명한다. 디톡스 요법에 의하면 몸에 독이 쌓여 있으면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도움이 안되는 만큼 몸에 좋은 음식을 먹기 보다는 독을 먼저 없애 주는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최근 '내 몸의 독소를 빼는 주스&수프 다이어트'(이아소·9천500원)를 펴낸 디톡스 전문 의사 마츠이 케츠네오는 그의 책에서 "장의 기능이 저하되고 변비가 오랜 기간 지속되면, 몸 밖으로 독소들이 나가지 못할뿐만 아니라 몸 안에서 새로운 독소가 만들어"

### 디톡스 주스 장 자극 몸안 가스배출 지중해식 수프 포만감 주며 배변 도와

진다"며 "몸 안에서 발생하는 독소는 혈관에 다시 흡수되어 전신을 돌면서 피나 림프의 흐름을 막고 온몸의 신진대사를 악화시켜 ▲체중 증가 ▲여드름이나 피부부러블의 원인 ▲두통이나 어깨결림 ▲배를 볼록 나오게 하는 등 체형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말한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몸 안의 독소를 큰 부담 없이 간편하게 배출하는 방법은 없을까. 쉽게 만들어 마실 수 있는 음료와 수프 등으로 디톡스 음식들에 도전해 보자.

디톡스 주스는 청량하고 산뜻한 맛과 향 뿐만 아니라 장을 자극해 몸 안에 쌓인 가스를 배출 시켜주는 '페퍼민트'에 생강과 레몬, 올리브오일, 미네랄 워터 등을 첨가한 것이다. 민트 차(400ml)를 우려낸 뒤 거름망을 걸러 미네랄 워터 100ml를 넣고 레몬즙 2큰스푼, 생강과 올리브오일을 섞어주면 된다. 하루에 1~1.5ℓ 씩 물 대신 마신다.

지중해식 수프는 적은 양으로 포만감을 주고 배변을 좋게 하는 이상적인 다이어트 음식. 조리할 때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리브 유에는 배변 작용을 돕는 오래된 산이 들어 있는데 야채나 곡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와 만나 디톡스 효과를 증대시킨다. 토마토(항산화작용), 콩(장 해독), 브로콜리 새싹(일반 브로콜리의 20배에 달하는 항암작용), 파프리카(노화 억제), 감자(부종 개선), 치즈(정장작용) 등의 재료를 이용하면 건강에 좋은 수프를 만들 수 있다. /박연지기자 ksj@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containing multiple sections: '침단월계공인중개사', '금부부동산컨설팅', '매일부동산', '한솔공인중개사사무소', '정원공인중개사', '에이플러스 부동산컨설팅', and '에셋코리아 부동산컨설팅'. Each section lists various properties for sale, rent, or investment with details like location, price, and contact information. It also includes a '골프연습장' (Golf Practice Field) and a '주요사업' (Main Business) section.